

# 목포시의원들 끼리끼리 해외연수 '빈축'

### 소속 당별, 친분 있는 의원끼리 그룹별 추진

### 3700만원 들여 일정도 가고 싶을 때 맘대로

목포시의회가 기상천외한 의원 해외연수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시의회는 의원 1인당 180만원 범위에서 총 예산 3690만원을 들여 '그룹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시해왔던 국외연수와는 색다른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별로 일정에 맞춰 1년 내에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결국은 1년이라는 시한 안에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고, 연수도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그룹별로 간다는 것. 더욱이 연수 대상국도 각양각색이다. 스페인·포르투갈·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중국도 있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의원들 설문조사를 거쳐 잠정 결정된 안에 따르면 현재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제 1그룹은 민주·무소속 포함 9명, 제 2그룹은 민노당 5명, 제

3·제 4그룹은 각각 민주당 4명, 3명 등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획일적인 연수를 탈피해 의원들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테마별 연수가 가능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정계에서는 '끼리끼리', '따로 국밥'(민주당, 민노당) 연수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시의회는 기획복지·관광경제·도시건설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회별 특성을 살려 소속 의원들끼리 위원회 특성에 맞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소속 당 별로' 또는 '뜻이 통하는 의원들 몇몇이' 연수를 간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안팎에서는 시의회 구성 자체가 복잡 미묘한데다가 의원들 개개인의 강한 개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역학구도가 잠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해외연수는 잠정적인 결정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 슬로시티 신안 증도서 소금마을 이야기 축제

### 5·6·7월 세차례... 천일염 관련 체험행사 등 다채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 증도 대평염전에서 '제1회 슬로우 소금마을 이야기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대규모 축제에서 벗어나 염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는 소금잔치로

▲5월 20~23일 ▲6월 17~20일 ▲7월 15~18일 등 3차례에 걸쳐 천일염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슬로푸드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5월 축제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의 난장 북 놀이와 인천 저소득층에 클래식을 전파하는 i-신포니에타가 소금밭에서 공연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사진 공모전과 소금밭 체험, 소금 비누 만들기, 소금 찰흙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해남고구마 생산도 차별화

### 수출·가공 등 용도별 전문 단지 조성 재배

해남군은 수출용과 가공용 등 판매 용도별로 고구마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고구마 차별화 시범사업을 실시, 수출용 및 가공용 고구마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수출용 고구마는 주생산지인 화산면 등에 10ha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구마 수출은 지역 유통업체에서 일반 고구마를 수집, 선별해 수출하면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운송과정에서 부패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생식 및 샐러드 용으로 고구마

를 식용하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품질도 호박, 안노베니 등의 품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수출농가 보급 ▲육묘 및 생산, 저장, 선별 등 일괄시스템 적용 ▲품질향상 종합기술 매뉴얼 보급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가공용 고구마 생산단지 5ha도 조성된다.

가공용 고구마는 가공용 품종(다수확)인 건미, 신건미 등의 품종을 생산, 식품 가공용 등으로 관리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생산되는 가공용 고구마의 경우 총량의 한 업체와 kg당 750원에 전량 납품계약을 했으며, 생산 예상량은 125t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영광군 투자유치 기업 잇따라 준공

### 친환경목재·천연음료공장 본격 제품생산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에 친환경 합성목재 공장과 천연음료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친환경 합성목재 생산업체인 ㈜이우드코리아와 천연 음료 생산업체인 ㈜새암푸드먼트는 18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정기호 영광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이우드코리아는 80억원을 투자해 4천656㎡ 규모의 친환경 합성목재(WPC) 공장을 준공했다.

WPC는 합성목재가 방부목의 대체재로 급부상하면서 조정 및 건축자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이 회사는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부지 매매계약을 단 3일 만에 마쳐 화제가 됐다.

또 새암푸드먼트는 60억 원을 들여 세운 1130㎡ 규모의 공장에서도 친환경 쌀로 만든 식혜 및 천연과일 주스 등을 생산하게 된다.

정기호 군수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의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선도시로, 지난 14일에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해상 풍력 발전 실증단지'로 선정됐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해양경찰청 해양문화 연구 협약

서해안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섬과 바다를 연구하는 대학 전문연구기관이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지난 17일 서해 지방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해상문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도서 해양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서 협약이 이뤄졌다.

양측은 섬과 바다 관련 행정 편의와 학술 지식을 제공하고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관학 업무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봉룡 원장은 "앞으로 두 기관은 섬과 바다를 주제로 한 도서해양 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국민 문화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단 신안 원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부장	정기태
정운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고규석	차장
조익성	기자
황운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

# 전북

##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사료작물 재배

### 농진청 염분농도 0.2% 조건

### 청보리·귀리 등 생산 가능

염분이 남아있는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에서도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의 다양한 토양조건에서 청보리·밀·호밀·트리테카엘·귀리 등 5개 작물을 시험 재배한 결과 토양 염분농도가 0.2% 이하인 조건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염분농도가 0.2%인 토양조건에서의 수확량은 염분이 전혀 없는 토양조건에 69~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염분농도 0.2% 이하인 간척지에서 청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경지 파종량보다 훨씬 많은 10a당 36kg을 파종하고 질소비료도 10a당 28kg정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염분농도가 0.3% 이상인 토양조건에서는 염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돼 사료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지에 있는 농업용지는 8570ha로 이중 염분농도가 0.2% 이하인 곳이 많아 적절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조사료 자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 아쿠아로빅 인기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남원지역 주민들이 남원시 보건소 주관의 '수중 관절 운동교실'에서 '아쿠아로빅'을 익히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새만금 관광단지 시행자 선정 무산

### 의향서 제출 기업체들 공모 신청 포기... 개발 차질 우려

서울 여의도 면적(850ha)을 웃도는 새만금 관광단지(990ha)의 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오전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나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아 더는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의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외에서 모두 7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냈으나 아들 업체가 최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의향서는 중국과 미국 등 2개의 외국업체와 국내 건설사와 일반 기업 5곳이 낸 바 있다.

새만금 경제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의 창의성과 실현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1개를 선정할 뒤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

있다.

그러나 공모가 실패함으로써 전체 개발방식을 단계별 혹은 부분별로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2019년 총 9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관광단지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해 골프휴양지를 비롯해 관광·숙박,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지로 개발된다.

이명호 새만금 경제청장은 "재공모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나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뉴스

## 전북도 방파제 등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170억 투입

전북도는 어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어항 기반시설 확충에 17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국가어항인 구시포와 격포항에 73억원을 들여 방파제(80m)와 취수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어항인 개야·방축·공항·송포·식도항 등에 75억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물양장 497m를 확충한다.

또 부족한 어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군산과 고창, 부안 어항 내에 다목적 인양기를 8대 설치한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선의 상시 입·출항이 어려운 군산 부안지역 항구에 부잔교(浮棧橋=부두에서 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한 다리) 3대를 설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전주시 21일 안전한 먹을거리 한마당 개최

전주시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노송광장에서 '제11회 안전한 먹을거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체험을 통한 먹을거리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생산자간의 생산에서 소비

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로컬푸드(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가까운 지역의 먹을거리) 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한마당은 안전한 먹을거리 체험부스를 비롯해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과 줄다리기 등 전래놀이 한마당이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고부면 독거노인 세탁 도우미 사업 호응

정읍시 고부면이 지난달부터 홀로 사는 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화로 세탁을 해결해주는 '독거노인 세탁 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르신 행복 나누미 사업단'과 도시락 배달 사업

을 수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고부면사무소 관계자는 "세탁물 수거와 배달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보호자 부재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경찰서, 청령동아리·경찰발전위 워크숍

김제경찰서는 지난 17일 금산면 금산사에서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한 '청령동아리·경찰발전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용식 서장은 비롯해 각 과장, 경찰발전위원

회 청문분과위원, 청령동아리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식 서장은 "신뢰받는 경찰이 되려면 청령의식 정착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 "고구 호스 거친 수돗물서 페놀성분 검출"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18일 "가정이나 식당에서 흔히 수도꼭지에 연결해 쓰는 고구호스가 인체에 해로운 페놀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맑은물사업소는 "조사 결과 고구호스를 통과한 수돗물에서 기

준치(0.005ppm) 이상의 페놀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고구호스를 단력 있게 유지하고자 사용하는 페놀 성분의 가소제와 착색제가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해 페놀의 한 종류인 클로로 페놀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폐 철도 활용 추억의 탐방길 조성**

군산시가 경암동 '철길마을'을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폐 철도를 활용한 추억의 탐방길'로 조성한다.

'철길마을'은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기차운행은 중단됐지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추억의 기차길이다. 또 주변 자투리땅에 지어진 관자집은 정겨움과 소박함 등의 진솔함이 묻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이달 말부터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경암동 폐 철도 500m구간을 정비하기 시작해 9월

에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폐 철도 탐방을 위한 철길 정비와 인근에 방치된 자투리 공간에 썬지공원을 조성해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폐 철도를 활용한 추억의 탐방길이 조성되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폐 철도를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